

美서 3년만에 일시귀국

# 청화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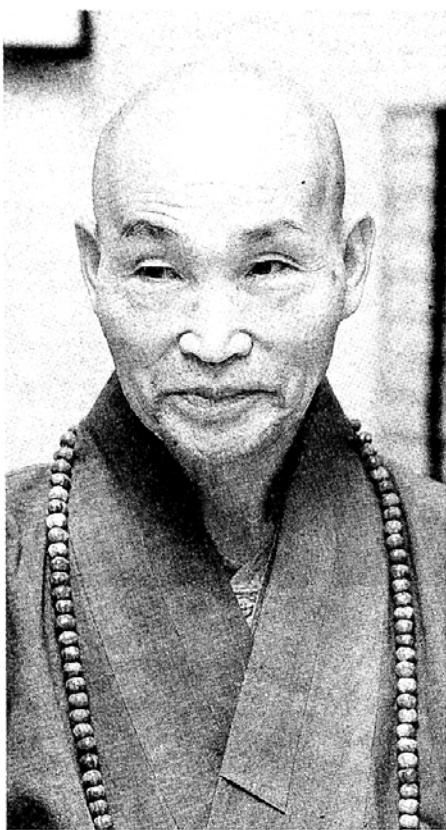
특별 법회 지상중계

## 나도 이웃도 편해집니다”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으나, 우리 불자들의 수행에는 걸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정보화시대의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컴퓨터는 문명의 이기임에는 틀림없어 물질적인 편리함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 생명 자체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인류가 차근차근 발전되어 간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는 모양은 좀 발달돼 가겠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으로 보서는 발달은 커녕 점점 퇴화한다고 봐야 합니다. 50억 인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참다운 성자가 몇이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할 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불자들은 곁을 꾸미는 데 집착하지 말고, 속절있게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상에 고달라 행하는 모든 것은 부처님 법을 자기 것으로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이른바 상을 떠나버린 모두를 하나의 생명으로 본다는 것은 그나마 하나의 생명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의 본체인 불심(佛心)을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상으로 보아서는 제아무리 많은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 자리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근본자리와 현상의 것을 물과 물결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근본자리는 물에, 현상적인 문제는 바람따라 일어나는 파도에 빚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업장의 현상만 볼 뿐 나의 본질도 너의 본질도 못보고, 만유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뿐 아니라 식물 동물



### 성자와 중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자는 만물을 한 생명으로 보고 중생은 천차만별로 나누어 생각

요, 하깨비요, 그림자요, 또는 아지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은 여실히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내 몸중이 모두 비었거니, 내 집이나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맡아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어서도 가지고 갈 것 같이 집착을 보이지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세요. 그것처럼 편하고, 쉬운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가 순식간에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자의 안목에서 본다면 당체즉공이기 때문에 이 세계 그대로가 모두 공입니다. 공의 알맹이가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광명 찬란한 불성이 이 우주에 종단해 있습니다.

지금은 모양으로 살지만 맺어짐 뒤에는 우주의 법에 따라 모두 파괴 소멸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참담한 재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 그전에 해탈의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다행히 부처님 법은 대차대비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차근차근 공부해서 모두 천상에 올라간 후에 파괴가 됩니다. 기독교의 최후의 심판과 같이 비극적인 최후가 아니라 이것이지요. 파괴가 된 다음에는 다 텅 빈 공무변이라. 거기에는 마음만 있는, 식만 존재하는 중생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주가 텅 빈 데서 모양이 이뤄집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위대한 철인도 학자도 결국에는 부처님법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현대물리학도 점차로 증명해가고 있으며, 불교는 가장 투철한 과학인 동시에 가장 궁극적인 철학, 영생해탈의 종교입니다. 해탈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간법을 지양하고 제법이 비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어서 내 행복을 위해서나,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나,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있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수록 부처님 가르침을 지극하게 따라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마음법 뿐 아니라 우리 몸에도 제일 좋은 보양법입니다.

초월적인 본래의 자리에 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탈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이 모두 공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중생이 보는 모든 것은 꿈이

정리=이은자 기자

### 나와 경전



#### 약사경

요즘 내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건강한 삶에 대한 것이다.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주변에서 마음을 담은 몸이라는 그릇이 깨지거나 새고 있는 경우가 부쩍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머니의 병환은 오랫동안 하나의 화두로 자리잡을 것 같다. 전통적인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당신도 역시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아오셨다. 전혀 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는 어느 한 곳도 성신한 데가 없다. 처음엔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어머니 모습을 보며 자책도 많이 했고, 또 자신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약사경>을 만나면서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자신의 몸을 맡가뜨리면서까지 어머니가 나에게 깨우쳐주려 하신 것은 무엇일까'



정진원  
총익대 강사

한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1권) 3가지가 있다.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의 중심 사상은 제물이 말해주듯 붓다를 중생의 마음과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 비유해 구제하는 내용을 12가지 대원으로 설명하고 그 공덕과 위신력을 문답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12대원을 살펴보면 1대원은 모든 중생이 자신과 같은 상유를 갖추는 것, 2대원은 중생들의 어두운 세계를 밝히는 것, 3대원은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과 소유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 4대원은 중생들이 보리를 얻고 소승은 대승으로 돌아오는 일, 5대원은 중생들이 계율을 지키고 파계한 중생이라도 약사여래 명호를 부르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7대원 '중병실제'(衆病悉除)의 내용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인 각종

### 약사여래의 12대원과 공덕 설해 몸의 병과 삼독심 치유법 제시

몸은 경전의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데, '약사'는 세상의 의사가 몸 속의 병과 외상을 낫게 하는 데서 더 나아가, 마음의 삼독을 비롯한 모든 병고와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역할을 뜻한다. '유리'는 마치 유리가 속까지 환히 비추는 보배이듯 마음의 본체를 밝힐뿐 아니라 어둠을 없애주기 때문에 불인 이름이다. <본원공덕경>은 고뇌 속에 사는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 그 약사여래께서 12가지 큰 발원을 하고 그 공덕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불어진 명칭이다.

12대원 중에서도 '미혹하고 수고로운 병을 앓다가 나의 이름을 들으면 모두 지혜와 재능을 갖추리라'(6대원), '빈궁, 고독, 실명으로 고뇌하는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 심신의 안락을 얻게 되리라'(7대원), 또는 '한없는 재난과 근심걱정으로 받는 고통이 있으면 나의 복덕의 힘으로 일체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리라'(10대원)는 구절들이 요즘 내게 살갑게 다가온다.

현존하는 <약사경>의 한역본은 수나라 말엽의 <불설약사여래 본원경>(1권), 당나라 의상장문의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2권)과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당나라 현장장장이 번역

의 병을 다스려 준다는 약사여래의 역할이 잘 나타나 있다. 8대원은 여인이 남자가 피기를 원하면 남자가 될 것, 9대원은 악연을 버리고 정전에 돌아와 뜻을 알게 될 것, 11대원은 굶주리고 목마른 고통 중에 약사여래 이름을 들으면 좋은 음식과 마음의 법미(法味)를 얻어 안락하게 될 것, 12대원은 가난과 할탈을 당할 때 좋은 옷과 장엄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단지 국어학이라는 전공에 필요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배경 지식을 알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판한 불교에 관한 관심은 88년 '경전읽기 모임'과 89년 송광사 여름 수련회에 참가하면서부터 본격화됐고 인도 여행을 통해 심화되었다. 서서히 나는 불교라는 책목에 몸을 실게 되었고 지금까지 경전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때의 인연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 관심분야인 역경에 대한 공부를 하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선시대 우리말로 쓰여진 경전들이 속속 번역되고 있고 또 또한 이 일에 평생 서원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불교는 투철한 과학... '물질은 쉰' 깨달아야 "어렵고 힘들수록 부처님 가르침 따르자"

모든 두드물물의 본바탕이 바로 불심이고, 일체존재의 본질기에 불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성, 실상, 도, 열반, 여래장 등도 같은 뜻입니다. 표현은 비록 다르더라도 근본은 똑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것은 불심 자리 불성자리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자는 그 자리가 하나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아직 그자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부처님같은 성자들의 가르침이 있기에 마음의 본질이 불심임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더러는 비극적인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나 또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보시를 해주신 그

런 분들에게는 더욱 더 가슴 아프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는 걸까요.

경제학자,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내놓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자기의 본바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가도 알 턱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말로 철학의 빈곤입니다. 철학이 없습니다. 칸트, 니체 이런 것에 박식하다고 철학이 아닙니다. 일체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철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경을 통달할 정도로 위우더라도 그 본질 자리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나라경제나 개인경제나 모두 거품을 걷으라고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 모두가 거품을 가지고 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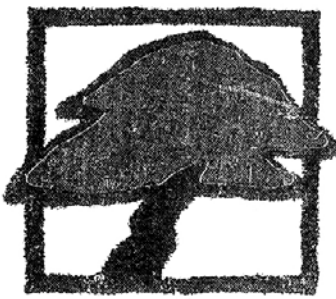
아무리 금불이를 많이 지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림자에 그림자를 붙인 것입니다. 마음찾기에는 하등 도움이 안됩니다. 일체 물질이 사실은 경탕 빈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왜 '색즉시공'이라 했을까요. 물질 그대로가 공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같이 물질을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당체즉공이고, 삼계유심이라.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모든 세계인 삼계에 오직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마음이란 것은 순수 생명입니다. 순수 생명에 다른 것은 모두가 헛것이라는 겁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도리가 모두 이런 도리입니다.

초월적인 본래의 자리에 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탈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이 모두 공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중생이 보는 모든 것은 꿈이

### 건강보조식품허가

##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 시판개시!

선(仙·神)자를 파자(破字)하면 '山',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추드름(常稈)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나.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에 물(水)·불(火)·흙(土)·쇠(金), 네 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회생 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회생 소멸하여 자식적인 불을 생기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쪽(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난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儀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다·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봉령·적봉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 당귀·감초·포도버섯·홍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호소와 미생물 호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여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중합영양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 다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후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관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96.57796호(솔효소정액)96.5587호(솔선식), 98.3.31(건강보조식품 허가) 앞으로 기적의 우리 소나무 중합강장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허원등록시 할인가액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허원등록시 할인가액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